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자기서사와 자기실현의 문제

—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

김지훈*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자기서사와 자기실현의 문제
 - 1. <채식주의자>—‘대극’의 주체로서 남편의 서사
 - 2. <몽고반점>—‘금기’의 주체로서 형부의 서사
 - 3. <나무 불꽃>—‘사이’의 주체로서 언니의 서사
- III.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강의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자기서사’와 ‘자기실현’의 문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각 연작에는 ‘서사의 주체’로 남편(『채식주의자』), 형부(『몽고반점』), 언니(『나무 불꽃』)가 등장한다.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자기서사’를 분석하는 것은 문학치료학의 중요한 이론이다. 종래의 문학이론이 주인공의 서사에 중점을 두고 작품서사를 분석했다면,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주축을 이루는 즉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각 주체의 자기서사를 분석하는 방법론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을 심층적이고 다각화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더불어 이 작품은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개성화 즉, 자기실현의 문제로 접근할만한 서사의 주체와 주제가 제기된다. 가령 사회적·의식적 관점에서 억압되는 채식, 거식, 형부와의 섹스, 자살시도, 무의식과 꿈 등은 분석심리학의 ‘그림자 이론’으로

*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연구전담조교수

접근했을 때 해석의 어려움을 들 수 있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의식세계가 거부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면, 융은 무의식을 한 개인의 전체성을 이루는 원대한 세계인 동시에 창조적 에너지로 보았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서사’를 형성하는 주체이며 ‘자기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의식적 문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개인적·무의식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림자의 긍정성과 창조성을 발현하여 사회적·의식적 삶에서 조화와 균형을 맞춰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 자기서사, 자기실현, 그림자, 서사의 주체, 의식과 무의식, 개인과 사회

I. 서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생존의 위협’과 ‘불안’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생존과 불안은 衣食住 해결문제를 너머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진 양상으로 심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종래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굶주림’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다. 이러한 기본적 욕구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욕망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자기실현의 욕망이 있다. 하지만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인간이 자기실현을 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은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법이나 규칙에서 벗어나려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인문과학으로서 문학이 인접 학문인 사회과학과 별개로 특성화되는 지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좋은 소설이 응답형상화해야 할 ‘주제’와 ‘주체’는 무엇이며, 어떤 ‘서사’를 전개해야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은 소설은 사회적 보편성이나 윤리·도덕의 것

대에 고착화되어 그것을 강요하거나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지나간 과거를 안도하거나 먼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를 직시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유린과 인간성 상실이 팽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소설의 방향은 적어도 그것의 문제를 직시하고 제기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동선을 위한 최소한의 법과 종교도 그 기능과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다. 다수의 횡포와 맹목적인 믿음의 강요 속에서 인간은 불안 속에 방황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문학은 사회적·종교적·의식적 삶을 맹목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권유와 제안 그리고 제시의 장르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세 편의 연작으로 구성된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앞서 제기한 사회적·의식적 동물로서 인간 존재의 규명을 너머 탈사회적·무의식적 인간 존재의 문제를 제기한다. <채식주의자>와 <몽고반점>에서는 남편과 형부가 서사의 주체로 등장하며, <나무불꽃>에서는 언니가 서사의 주체로 등장한다. 이 소설의 표제작인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주의를 고집하다가 거식증에 걸려 병원에서도 치료불능 상태가 된 주인공, 영혜와 가족의 파란만장한 서사가 전개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 연작마다 다르게 설정된 ‘서사의 주체’¹⁾이다. 다시 말해 소설에는 주인공인 영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의 자기서사²⁾가 전

1) 문학치료학에서 ‘서사의 주체’ 개념은 서사에서 ‘사건’보다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각 연작마다 ‘서사의 주체’가 다르다. 이러한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게 되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물론 심층적으로 숨겨진 서사까지 찾아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 『영화와문학치료』3, 2010, p.325 참조.

2) “자기서사란 인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작용하여 삶을 구조화하고 운영하는 근원적

개된다. 종래의 문학연구가 문제적 개인을 중심으로 작품서사의 의미와 가치를 분석했다면, 본고는 ‘인간관계’에 주목하는 ‘문학치료학적 관점’과 자기실현(개성화)의 과정으로서 인간의 무의식 속 ‘그림자’에 주목하는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사회적·의식적 존재의 범주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적·무의식적 존재로서 인간정신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자기서사와 자기실현의 문제

루카치에 따르면 소설에서 ‘문제적 개인’³⁾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인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상적이거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비일상적이고 복잡하며 인간 내면의 심층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총체적 주체’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문학작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의식적·사회적’ 측면에서 논의되었다면, 본고는 분석심리학의 주요 이론인 ‘개성화(Individuation)’⁴⁾ 즉, 개인으로서 ‘자기서사(the epic of subject)’와 ‘자기실현(Selbstverwirklichung)의 과정’을

인 서사를 지칭한다. 이러한 자기서사에는 공통적으로 선택과 갈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문제인 동시에 인류사와 함께 시작된 문제이다.”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p.250 참조.

3) 본고에서 ‘문제적 개인’은 루카치의 소설이론과 더불어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사회적·의식적 존재인 동시에 개인적·무의식적 존재라는 관점을 함의하여 논지를 전개했다.

4) “개성화는 개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개성이라는 말을 우리의 가장 내적이며 궁극적이고 다른 것과 비길 수 없는 고유성(일회성, 유일무이성)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자기가 되는 것이다. 개성화는 자기화(verselbstung) 또는 자기실현(Selbstverwirklichung)이라고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C.G.Jung,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Dem Unbewubten*, Zurich: Rascher Verlag, p.65 참조.

분석하고자 한다. 소설에서 ‘자기실현’의 방법은 ‘자기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등장인물들의 ‘자기서사’를 분석하는 것은 ‘작품서사’의 유기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서 제기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컨텍스트로써 활용 가치가 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사회적 맥락에서 ‘정상화·규범화’된 일상을 전복하고 ‘자기실현’에 적극적인 주인공 영혜를 중심으로 남편, 형부, 언니가 ‘서사의 주체’로 등장한다.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주인공 영혜뿐만 아니라, 각 주체의 무의식 속 ‘그림자’⁵⁾에 대한 태도와 대응방식이다. 가령 <몽고반점>에서 형부와 처제의 섹스는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인격인 ‘그림자’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경우이다. 앞당겨 말하자면 『채식주의자』에서 ‘서사의 주체’ 간의 ‘대극’⁶⁾은 남성서사와 여성서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으로 고착화된 정상화와 규범화의 전제가 ‘권력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한 장치로 분석된다.

1. 〈채식주의자〉—‘대극’의 주체로서 남편의 서사

아내가 채식을 하게 된 계기는 텍스트에서 이탤릭체로 표기된 ‘연속된 꿈’⁷⁾에서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 즉, 자신을 문 개

5) 융은 그림자를 무의식 속 원형적 감정, 반사회적 인격으로 보고 의식과 조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C.G. Jung, 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번역위원회, 『원형과 무의식(융 기본저작집2)』, 솔출판사, 2006, p.73 참조

6) “대극이란 어떤 상태의 극단적인 성질이다. 이 성질 덕분에 대극은 실제로 지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재능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정신은 여러 대극의 조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내가 자살시도를 함으로써 그림자의 상충은 일단락되고, 서사의 주체가 남편에서 형부로 바뀌는 <몽고반점> 연작이 시작된다. C.G. Jung, 앞의 책, p.71 참조

7)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이란 꿈에 등장하는 원형적 성질의 상들을 말한다. 연속된 꿈은 꿈꾼 사람이 스스로 제공하는 맥락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원문이 아니

를 오토바이에 묶어 죽인 후 그것을 자신에게 먹게 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남편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다.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된 고기를 버리고 잠자리까지 거부하는 아내가 ‘꿈’ 이야기만 늘어놓는 현실이 낯설고 불편하다. 아내의 행위는 타당한 것인가? 그것은 사회·보편적 관점에서는 아내의 문제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성화의 관점에서 아내의 행위는 무의식 속의 ‘그림자’가 의식화된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시 말해 아내의 ‘자기실현’의 욕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내가 ‘그림자’를 의식화한 후의 대응방식이나 태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의식 속에 억압된 저마다의 ‘그림자’가 있다. 융은 ‘그림자’를 부정적 인격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전체성⁸⁾을 이루는 긍정적·창조적 에너지로 보았다. 인간이라면 살면서 누구나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무의식 속에 잠재되고 억압된 것이 ‘그림자’다. 이러한 관점에서 융은 ‘그림자’를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인격으로, 마냥 방치하거나 억압만할 경우 극단적으로 자해나 자살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916년에 발표한 임상논문 『초월적 기능』에서 ‘적극적 상상(aktive Imagination)’⁹⁾

라 알려지지 않은 용어를 모든 측면에서 밝혀주는 수많은 원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각각의 원문의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원문을 모두 읽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개개의 단편적 꿈에 대한 해석은 본질상 추측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속도니 꿈 전체의 진행은 일시적인 개개의 단편적 꿈에 나타나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될 것이다.” C.G. Jung, 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번역위원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융 기본저작집5)』, 솔출판사, 2006, pp.56-62 참조.

8) “융은 전체성(全體性)을 의식뿐 아니라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등 무의식의 모든 속성을 포함한 전체로 보았다. 전체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란 분열을 지양하고자 하는 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부영, 『마음의 구조와 기능』, 『분석심리학』, p.127.

9) “적극적 상상은 수동적이고 의식의 개입이 미약한 꿈이나 환상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꿈이나 환상이 막연한 ‘생각’을 뜻하는 것이라면 적극적 상상은

을 통해 긍정적으로 유도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아내의 행위는 무의식의 영역인 ‘꿈’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러한 꿈이 환상이나 몽상의 차원이 아닌 현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표출되기 때문에 ‘서사의 주체’인 ‘남편’과 갈등이 일어난다.

“.....냄새가 나서 그래.”

“냄새?”

“고기 냄새. 당신 몸에서 고기냄새가 나.”

나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못 봤어? 나 샤워했어. 어디서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녀의 대답은 진지했다.

“.....땀구멍 하나하나에서.”

나는 가끔 불길한 생각을 했다. 혹시 이것이 초기증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말로만 듣던 편집증이나 망상, 신경쇠약 따위로 이어질 시초라면. ...중략...
내가 까닭을 물으면 “꿈을 꿔.”라고 대답한다는 것뿐이었다.

『채식주의자』, 24-25면.¹⁰⁾

위의 인용문에서 평소와 다른 아내의 태도는 그녀가 일상을 너머 다른 차원의 공간¹¹⁾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낯설음과 동시에 공포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내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이탤릭체¹²⁾로 쓰인 부분에서 구체

내면적인 심상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사고행위의 일종이다.” C.G. Jung, G.S. Hall, J.Jacobi(1986), 설영환 역, 『융 심리학 해설』, 선영사, p.317.

10) 이후 본고에서 텍스트 인용은 각 장에서 소제목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을 밝히고 해당 면 표기로 제목을 생략했음을 밝힌다.

11) 여기서 ‘장소’가 아닌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전자의 ‘현장성’이나 ‘의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뒤에 이어지는 <몽고반점>에서는 아내가 ‘현장성과 의도성’을 획득함으로써 ‘장소’가 묘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적으로 드러난다. 이텔릭체에서 ‘서사의 주체’는 아내이며 ‘꿈’¹³⁾ 이야기가 주가 된다. 때문에 정확한 줄거리를 파악하기보다 소설의 분위기나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 장치로 분석된다.

①수백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내리고 있었어. 끝없이 고깃덩어리들을 헤치고 나아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흰옷이 온통 피에 젖었어. —18면

②두번째로 짐은 불고기를 우물거리다가 당신은 입에 든 걸 뱉어냈지. 반짝이는 걸 골라 들고 고향을 질렀지. 뭐야, 이젠 칼조각 아내 일그러진 얼굴로 날뛰는 당신을 나는 우두커니 바라보았어. 그냥 삼켰으면 어쩔 뻔했어! 죽을 뻔했잖아 —26-27면

③“……내 다리를 물어뜯은 게가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이고 있어. …달리다 죽은 게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고,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해. …개는 검붉은 피를 토해. 목에서도, 입에서도 피가 흘러, 저품 찌른 피, 번쩍이는 두 눈을 나는 곳곳이 서서 지켜봐…그날

12) 이텔릭체는 아내, 영혜가 꿈 이야기를 서술할 때만 사용된다. <몽고반점>, <나무 불꽃>에서는 이텔릭체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텔릭체는 꿈 즉, 무의식을 통해 영혜의 현실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다.

13) “꿈에 대한 객관적 해석은 일단 현실에서 겪은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자료에 근거한다. 꿈분석은 일단 꿈 이미지들에 대한 연상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재구성한다.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이 깊은 꿈(작은 꿈)은 꿈꾼 사람의 연상을 통해 어느 정도 그 맥락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원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중요한 꿈(큰 꿈)일 경우, 우리는 주관적인 방법으로 꿈의 상이 지닌 신화적·상징적 의미를 추적해야 한다.” (CW16,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319) 박중수, 『융 심리학과 정서』, 학지사, 2013, p.91. 재인용.

저녁 우리집에선 잔치가 벌어졌어.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나도 한입을 떠넣었지. 국밥 위로 어른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
지도 않았어. —52면

아내가 정상화(normalization), 규범화(normativization)로 일관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 즉,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과거(꿈/무의식)를 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식화하여 현실적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텔릭체로 쓰인 꿈의 내용이 ①에서 ③으로 전개될수록 상상¹⁴⁾에서 가공된 상징과 이미지의 열거에서 벗어나, 사실 전달의 구체적인 서술로 변화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내가 ‘상징적 세계’에 함몰되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응시하고 직시하여 ‘현실 세계’에서 ‘자기실현’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집안에서만 아니라, 남편의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아까부터 아내의 젖가슴을 흘끔거리고 있던 전무 부인이 말했다. 마침내 그녀의 화살은 아내에게 직접 날아왔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14) “꿈은 상상에는 <적극적 상상>과 <수동적 상상>이 있다고 말한다. 전자는 직관 즉 무의식을 인지하려는 자세에 입각하여 행해지며 후자는 | 러한 직관적 태도를 갖지 않은 채 전적으로 수동적인 태도 아래 나타난다. 따라서 수동적 환상에서는 정신의 해리가 나고 그 내용 또한 의식에 대립되는 경향과 특징을 보인다면, 적극적 상상에서는 반드시 해리가 일어난다고 볼 수 없고 의식은 무의식에 대하여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참여자의 자세를 갖게 된다. 또한 무의식의 과정보다 의식에 대하여 대립적인 특징이 아닌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부영, 앞의 책, 1998, pp.288-289.

요?”

“아니요.”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떼었다. 불현 듯 소름이 끼쳤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꿈을 꿔어요.”

나는 재빨리 아내의 말끝을 덮었다.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한의사의 충고대로 육식을 끊은 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32면.

남편은 회사 사람들과의 중요한 자리에서도 채식의 이유를 ‘꿈’이라고 말하는 아내의 행동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처가에 도움을 요청한다. 처가에서 벌어지는 서사에서 주목할 것은 가부장적 사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장인과 그것을 거부하는 아내의 ‘대극적 상황’이다.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가슴 뭉클한 부정(父情)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중략…

순간, 장인의 억센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뺨을 감싸쥐었다. “두 사람이 영혜 팔을 잡아라.”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은 탕수육을 짓이겼다.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물린 이빨을 어찌지 못했다.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인이 한 번 더 아내의 뺨을 때렸다. 아내는 몸을 웅크려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가 싶더니, 뒤돌아서서 교자상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아내의 손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50-51면.

처가에서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내는 육식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인과 남편 그리고 아내의 ‘태도와 대응방식’이다. ‘남편’이 ‘수동적’인데 반해 ‘장인과 아내’는 ‘능동적’이다. 다시 말해 남편은 이미 분노나 설득도 필요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포기한 상태이다. 하지만 다수인 남편과 처가 식구들이 소수인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 등의 강압적 태도를 취한 것은 아내의 공간을 소멸하고 자살시도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결과로써 ‘그림자’의 상충을 암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채식’의 상징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 ‘채식’은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만을 고집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심층적으로는 ‘가부장적 사회’ 더 나아가 기존의 규범이나 질서의 내적 모순을 고발하려는 장치이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은 특별함 없이 평범했던 아내가 변하는 데서 시작됐다. 다시 말해 개성화의 관점에서 소극적이었던 아내가 적극적으로 변하는 데 그 까닭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고집하는 행위 즉, ‘먹는 것의 차이’. 둘째,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행위 즉, ‘성적 욕구의 차이’ 셋째, ‘나’의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 즉,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망’의 차이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의 근원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남편과 아내의 ‘대극’은 아내가 입원(공간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림자’의 상충은 ‘잠정적’으로 해소된다. 하지만 아내의 현실 대응방식에서 ‘그림자’의 표출은 다음에 이어지는 연작 <몽고반점>에서 서사의 주체인 ‘형부’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금기’의 양상으로 심화되어 나타난다.

2. 〈몽고반점〉—‘금기’의 주체로서 형부의 서사

<채식주의자>에서 ‘남편’이 서사의 주체로 ‘육식과 채식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몽고반점>에서는 ‘형부’가 서사의 주체로 등장하며, ‘사회적 금기, 예술과 외설, 근친상간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탤릭체로 서술되는 ‘꿈’의 공간이 사라지고 현실에서 행위를 하는 주체로서 형부와 처제의 ‘장소’¹⁵⁾가 형상화된다는 것이다.

그의 아내가 그 일요일 오후 그에게 아들을 목욕시켜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들을 커다란 수건으로 감싸서 안고 나온 뒤, 아내가 아들에게 팬티를 입히는 모습을 보며 “아직도 몽고반점이 제법 크게 남아 있군. 대체 언제나 없어지는 거지?”하고 묻지 않았다면. 아내가 “글세…나도 정확한 기억은 없는 데. 영혜는 뭐, 스무살까지도 남아 있었던 걸”하고 뜻없이 말하지 않았다면. …중략…

처제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별거벗은 남녀가 온몸을 꽃으로 칠하고 교합하는 장면은 불가해할 만큼 정확하고 뚜렷한 인과관계로 묶여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73-74면.

사건의 발단은 ‘몽고반점’이다. 형부는 처제의 나체에 바디페인팅을 하고 비디오 작업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형부가 처제를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탄이나 금

15) “장소는 행위와 의도의 중심이며 우리가 실존의 의미 있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초점이다. 장소의 본질은 위치에서 오는 것도, 장소가 수행하는 사소한 기능들에서 오는 것도,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오는 것도, 피상적이고 세속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들 모두가 장소의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긴 하지만, 장소를 인간 존재의 심원한 중심으로 정의하는 대체로 무의식적인 의도성에 장소의 본질이 있다.”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2인 역, 『장소의 본질』,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8, pp.102-104.

기에 대한 염려보다 자신의 작업에 충실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할 뿐이다. 이것은 ‘사회적·의식적’ 범주를 가로질러 ‘개인적·무의식적’ 범주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써, 개성화의 관점에서 ‘적극적 상상(aktive Imagination)’의 한 방법인 예술활동을 통해 억압된 ‘그림자’를 승화하려는 능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 안된다는 거야? 내가 형부라서?”

“그런 게 아네요.”

“다 젖었다고 했잖아.”

“.....”

“그 자식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꽃이.....”

“꽃?”

...중략...

“내 몸에 꽃을 그리면, 그땐 받아주겠어?”

그녀는 물끄러미 그를 돌아보았다. 당연하죠.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이었다. 아니 최소한 그는 그렇게 느꼈다.

“그걸.....찍어도 괜찮겠어?”

그녀는 웃었다. 희미하게,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는 듯이. 혹은, 무언가를 조용히 조소하는 듯이.

—131-132면.

형부는 처제의 승낙을 받고 후배 J까지 작업에 동참을 시키지만, J가 작업 중에 거부함으로써 작업을 중단하게 된다. 위의 예문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행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형부와 처제 서로에게 ‘강요와 설득’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채식주의자>에서 남편과 아내의 ‘대극’으로 빚어진 관계와 불화가 여기서는 이탤릭체의 불결하고

불완전한 꿈이나 공간이 아닌, 직접적인 행위로써 자기표현과 자기실현을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장소’를 획득하고 또 상실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수분간의 섹스는 그녀의 이를 부딪치게 했고, 거칠고 새된 비명을 지르게 했고, “그만……”이라는 혈떡임을 뱉게 했으며, 다시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잠푸른 새벽빛 속에서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오랫동안 훑었다. “이걸 너희로 옮겨왔으면 좋겠어.” “뭘요?” “이 몽고반점.” —141면.

“이제 꿈을 꾸지 않게 될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그녀가 중얼거렸다. “꿈? 아, **얼굴**……그래, **얼굴**이라고 했지.” 서서히 줄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말했다. “무슨 **얼굴**이지? 누구의 **얼굴**이야?” “늘 달라요. 어떨 땐 아주 **낮익은 얼굴**이고, 어떨 때는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에요. 피투성이일 때도 있고…… 썩어서 문드러진 시체 같기도 해요.” …중략… “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고기만 안 먹으면 그 **얼굴**들이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의지와 무관하게 차츰 그의 눈은 감겼다. “그러니까……이제 알겠어요. 그게 **내 뱃속 얼굴**이라는 걸. 뱃속에서부터 올라온 **얼굴**이라는 걸.” 앞뒤를 알 수 없는 그녀의 말을 자장가 삼아, 그는 끝없이 수직으로 낙하하듯 잠들었다. “이제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142-143면.

형부와 처제는 작업의 절정인 섹스를 통해 서로의 ‘그림자’를 승화한다. 형부의 몽고반점에 대한 애착과 처제의 꽃(식물)에 대한 애착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격인 ‘페르소나’에서 벗어나 억압된 그림자에 대한 보상심리의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처제가 말한 “내 뱃속 얼굴”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상징한다. 이것은 레비나스가 말한 계

시으로써 ‘얼굴(Le visage)’의 개념과 상통한다. 다시 말해 형부와 처제가 제시하는 ‘얼굴’은 타자를 통해 현현되는 것이며 그것의 ‘대극’이 사라졌을 때 ‘얼굴’은 일종의 계시로써 “나의 입장의 위치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¹⁶⁾을 열어준 ‘장소’로 읽어낼 수 있다.

<채식주의자>에서 남편과 아내가 ‘대극’을 형성했다면, <몽고반점>에서는 형부와 처제가 섹스를 통해 그것을 해소하려는 장소가 형상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는 아내(언니)의 방문으로 무산된다.

“거기서 당신을 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 절망이 함께 있었으나, 얼굴의 표정 자체는 오히려 거의 무감각하게 보였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별거벗은 상체가 아내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급히 셔츠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욕실 쪽에 내던져진 셔츠에 팔을 끼우며 그는 말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 이해하기 쉽진 않겠지만 ……” 아내는 갑자기 높아진 목소리로 그의 말을 막았다. “구급대를 불러놔요.” “뭐라구?” 아내는 희끗하게 질린 얼굴로, 다가오는 그를 피해 뒤로 물러섰다. “영해도, 당신도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중략…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베란다 쪽을 다가갔다. …중략…그녀는 베란다 난간 너머로 번쩍이는 황금빛 젓가슴을 내밀고, 주황빛 꽃잎이紛紛히 박힌 가랑이를 활짝 벌렸다. …중략… 지금 베란다로 달려가, 그녀가 기대서 있는 난간을 뛰어넘어 날아올 수 있을 것이다. 삼층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박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깨끗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못박혀 서서,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인 듯, 활활 타오르는 꽃 같은 그녀의 육체, 밤 사이 그가 찍은 어떤 장면보다 강렬한 이미지로 번쩍이는 육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146-147면.

16) 강영안, 『타자의 존재와 윤리적 관계』,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p.35.

“거기서 당신을 봤어요.”라는 문장에서 ‘거기’는 어디이며 ‘무엇’을 보았다는 것인가? ‘거기’는 아내가 닿고 싶지 않은 ‘공간’이며, 형부와 처제가 이미 넘어선 ‘장소’이다. 형부와 처제의 행위가 벌어진 ‘장소’는 아내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영역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언니가 그들을 목격하고 난 후 두 사람의 대응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형부는 다시 아내의 세계(공간)로 회귀하지만, 처제는 자기만의 세계 즉, 자기실현의 강렬한 세계(장소)에 몰입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금기에 대한 지탄, 아내(언니)에 대한 연민 혹은 공감, 금기에 대한 불편함 혹은 충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장소의 획득과 상실에서 오는 인간 정신의 본질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소설에서 어떻게 형상화 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루카치는 ‘당위를 파괴하고 비극’¹⁷⁾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시대와 사회 즉, 의식하는 바에 따라 정의나 규범의 성격과 범주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증명할 정신세계가 함의하는 무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연작의 마지막 작품인 <나무 불꽃>에서 서사의 주체인 언니를 통해 제시된다.

17) “본질이 어떻게 생생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비극이 형상화를 통해 대답했을 때에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모든 당위는 삶을 파괴한다)은 본질의 내재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의식되었다. 형식을 부여하는 운명 속에서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면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영웅 속에서 순수한 본질은 삶으로 깨어나고, 단순한 삶은 본질이라는 단 하나의 진정한 현실 앞에서 비(非)존재로 전락한다. 만개하는 충만하는 삶은 이에 대한 대비물로조차 사용될 수 없다.” 게오르크 루카치, 『완결된 문화들』,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12, p.35.

3. 〈나무 불꽃〉—‘사이’의 주체로서 언니의 서사

〈나무 불꽃〉에서 ‘서사의 주체’인 언니는 동생, 영혜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녀는 동생 영혜와 핏줄로 맺어진 낯익은 관계이지만, ‘그림자’에 대한 대응방식이나 태도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낯선 관계의 인물이다. 본 장에서 주목할 것은 언니가 동생 영혜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사이의 존재’¹⁸⁾가 되는 과정으로서 ‘자기서사’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가령 지우가 태어난 병원에 첫 조카를 보러 온 영혜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처음 봐, 이렇게 작은 아이는…… 갓 태어나면 원래 이런 거야?” 하고 중얼거리듯 물었을 뿐이었다. 엄마 계신 J읍까지 혼자 안고 갈 수 있겠어? 운전이야 형부가 하겠지만…… 힘들 것 같으면 내가 같이 갈까? 고맙게도 그렇게 살가운 제안을 해주었지만, 그때 영혜의 입가에 어린 조용한 미소는 어쩐지 낯설어 보였다. 마치, 그녀가 영혜를 낯설게 느끼는 것만큼이나 영혜 역시 그녀를 낯설게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다. —158-159면.

언니는 동생이 병원 자유산책 시간에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고도 예전과 같이 당황하거나 선뜻 찾아가지 않는다. 아들 지우가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터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언니가 동생, 영혜와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접하게 되는 것은 의식적인 ‘자아(自我)’를 너머 ‘자기(自己)’이다. 그녀는 사회가 만든 역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물이다. 다시 말해 개성화의 관점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격인 ‘페르소나’가 강한 인물이다.

18) 하이데거의 실존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매순간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자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순간’ 즉 일회성으로써 시시각각 변하는 존재를 주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분석심리학의 핵심이론인 무의식 속 ‘그림자’ 이론과도 상통한다.

①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할 줄 알았으며, 성실은 천성과 같았다. 딸로서, 언니나 누나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가게를 꾸리는 생활인으로서,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스치는 행인으로서까지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그 성실의 관성으로 그녀는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삼월 영해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다면, 비 내리는 밤의 숲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날 이후 모든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다면.

—169-170면.

② 아버지의 손찌검은 유독 영해를 향한 것이었다. 영호야 맞은 만큼 동네 아이들을 패주고 다니는 녀석이었으니 괴로움이 덜했을 것이고, 그녀 자신은 지친 어머니 대신 술국을 끓여주는 맏딸이었으니 아버지도 알게 모르게 그녀에게만은 조심스러워 했다. 온순하나 고지식해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던 영해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 모든 것을 뺏속까지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때 맏딸로서 실천했던 자신의 성실함은 조숙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다만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뿐임.

—191-192면.

③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지던 즈음이었다. 언제나 그랬듯 며칠 만에 새벽에 들어온 그가 도둑처럼 그녀를 안았을 때 그녀는 그를 밀쳐냈다. 피곤해요. 정말 피곤하다니까요. 그는 낮게 말했다. 잠깐만 참아. 그때 그녀는 기억했다. 그 말을 그녀가 잠결에 무수히 들었다는 것을. 잠결에, 이 순간만 넘기면 얼마간은 괜찮으리란 생각으로 견뎌다는 것을. 혼곤한 잠으로 고통을, 치욕마저 지우곤 했다는 것을. 그리고 난 아침식탁에서 무심코 젓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고 싶어지거나, 찻주전자의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싶어지곤 했다는 것을.

—198-199면.

④ 봄날 오후의 국립 승강장에 서서 죽음이 몇 달 뒤로 다가와 있다고 느꼈을 때, 몸에서 끝없이 새어나오는 선혈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믿었을 때 그녀는 이미 깨달았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선 죽음의 얼굴은 마치 오래 전에 잃었다가 돌아온 혈육처럼 낯익었다.

—201면.

①에서 언니는 천성적으로 생활력이 강하며 성실의 관성으로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②, ③에서 동생 영혜와 남편을 통해 “④자신이 오래전부터 죽어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실은 언니가 ‘자기(自己)’를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성화의 관점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견뎌왔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다.

사회적으로 완벽하고자 하는 언니의 강박증은 필연적으로 죄의식과 책임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이전의 연작 <몽고반점>에서 남편과 동생 영혜의 섹스는 언니에게 표면적으로는 상처로 환원되지만, 개성화의 관점에서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이자 ‘자기실현’의 원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살 수 있어. 햇빛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정말 나무라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식물이 어떻게 말을 하니. 어떻게 생각을 해. 영혜는 눈을 빛냈다. 불가사의한 미소가 영혜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언니 말이 맞아…이제 곧, 말도 생각도 모두 사라질 거야. 금방이야. 영혜는 쿵쿵, 웃음을 터뜨리고는 숨을 몰아쉬었다. 정말 금방이야. 조금만 기다려, 언니.
—186-187면.

② 언니도 똑같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아무도 날 이해 못해…의사도, 간호사도, 다 똑같아…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약만 주고, 주사를 찌르는 거지. 영혜의 음성은 느리고 낮았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냉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어조였다. 마침내 그녀는 참았던 고통을 지르고 말았다. 네가! 죽을까 봐 그러잖아! 영혜는 고개를 돌려, 낮선 여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물끄러미 건너다보았다. 이윽고 흘러나온 질문을 마지막으로 영혜는 입을 다물었다. …왜 죽으면 안되는 거야?
—190-191면.

③ 이걸 말이야

어쩌면 꿈인지 몰라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지……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 —221면.

자매의 대화가 진전될수록 ‘대극’의 상황은 명징해진다. 하지만 언니는 슬픔과 분노 등의 감정에서 벗어나 ②에서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라고 되묻는 동생의 질문에 ③에서 언니는 이성적으로 지금, 여기를 스스로 ‘꿈’이라 정의하고 명명한다.

이것은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진 동생에게 언니가 해줄 수 있는 배려이자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진실한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무 불꽃>에서 언니를 서사의 주체로 등장시킨 것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언니는 아버지와 남편과의 ‘대극’의 서사도, 형부와의 ‘금기’의 서사도 아닌, ‘사이의 주체’로서 인간관계의 방법을 권유하고 제시하는 모성 원형으로 분석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각 주체의 대응방식을 ‘개성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텍스트가 함의하는 바와 같이 복잡·다양해진 세상에서 정상화·규정화된 사회의 관습만으로는 인간정신의 본질을 규명하기에 역부족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과거의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피할 수 없는 대명제 하에 인간성 상실과 인권유린 등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게 하는 문제가 대두된 실정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기준이 온전히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 타자의 시선에 휘둘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론에서는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인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개인적·무의식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채식주의자>에서 ‘대극의 주체’로서 남편의 서사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의 대표적·상징적 인물로 ‘장인과 남편’ 그리고 그에 맞서는 ‘아내’가 묘사된다. 여기서는 ‘채식’이 단순히 사전적 의미나 표면적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형 상징으로서 무의식 속 ‘그림자’를 함의하고 있었으며, 아내의 자살시도는 아내와 주변 인물들의 상충되는 ‘그림자’에서 비롯된 ‘대극’을 잠정적으로 무력화했다. 여기서 ‘잠정적’이란 것은 ‘그림자’가 인간이 사는 동안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속성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림자’는 뒤에 이어지는 <몽고반점>에서 재생되고 활성화 된다.

<몽고반점>에서는 ‘금기의 주체’를 통해 ‘그림자’가 형상화 되었다. 앞서 <채식주의자>에서 이탤릭체로 쓰인 꿈의 ‘공간’이 사라지고 대신 ‘현장성’과 ‘의도성’을 함의한 ‘장소’가 형상화된다. 형부의 욕망과 처제의 욕망이 결합된 결과는 처제의 방에서 섹스를 통해 발현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형부와 처제의 ‘장소’가 사회적 페르소나가 강한 아내(언니)에 의해 상실됨과 동시에 앞으로 문제를 감당해야할 인물이 아내로 지목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 형부와 처제의 행위는 아내에게 표면적으로는 상처로 환원되지만, 심층적으로는 ‘자기(自己)’를 직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계기이자 원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연작의 마지막 작품인 <나무 불꽃>은 서사의 주체로 언니가 등장했다. 사회적인 ‘페르소나’가 강한 언니의 강박증은 죄의식과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한 것은 동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언니의 태도와 대응방식이다. 그녀 또한 동생에 대한 감정이 걱정을 넘어서 슬픔과 분노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하거나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님을 자각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의식적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인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나무 불꽃>에서 언니 인혜는 지금, 여기를 ‘꿈’으로 명명했다. 이것은 규정화·정상화의 전제가 ‘권력’이라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사이의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표방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직시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미약하나마 사회에서 말하는 규정화·정상화의 전제가 ‘권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인간정신의 본질과 존엄성’의 문제점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2. 논문 및 단행본

강영안, 「타자의 존재와 윤리적 관계」,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13.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_____,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제」, 『영화와문학치료』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C.G. Jun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원형과 무의식(융 기본저작집2)』, 숲출판사, 2006.

_____,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음 기본저작집5)』, 솔출판사, 2006.

_____ 외 2인(설영환 역), 『음심리학 해설』, 선영사, 2007.

CW16,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319.(박종수, 『음 심리학과 정서』, 학지사, 2013.)

E. Relph, 김덕현 외 2인 역, 『장소의 본질』,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8.

Georg Lukacs,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12.

Abstract

Issues of Self-Narrative and Self-Realization
in Han Kang's *The Vegetarian*
- Focused on the Subject of Narrative -

Kim, Ji-hu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ssues of 'self-narrative' and 'self-realization,' focusing on 'subjects of narrative' that appear in Han Kang's series of novels, *The Vegetarian*. In this work, Husband (The Vegetarian), Elder Sister's Husband (Mongolian Spot) and Elder Sister (Namu Pulkkot) appear as the 'subjects of narrative' Analyzing a self-narrative, focusing on the subject of the narrative is an important theory of literary therapeutics. While the traditional literary theory analyzed the narratives of literary works, focusing on the main character's narration, the methodology of analyzing the self-narrative of each subject, focusing on the human relationship in literary therapeutics, i.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s of narrative had a merit that it could interpret the conflict and issues occurring in the human relationship from in-depth and diversified perspectives. In addition, this work raises the subject and topic of narrative which can be approached as an issue of individualization, that is, self-realiz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analytical psychology. For example, there was a difficulty in the interpretation of vegetarian diet, refusal of food, sex with elder sister's husband, suicidal attempt, unconsciousness and dream suppressed from social and conscious perspectives when approached the 'shadow theory' of analytical psychology. Each man is a subject forming a self-narrative and suffers from a conflict in the process of self-realization. It is important to approach this conflict from individual and unconscious perspectives, instead of limiting that to social and conscious issues, and to look for a method for harmonizing and balancing with a social and conscious life.

Key Word : Self-narrative, Self-realization, Shadow, Subject of narrative,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Individual and society

김지훈

소속 :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연구전담조교수

전자우편 : poet0619@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
